생의학산업 벨트를 가다 ④ 곡성

⑩ 자연순환형 생명농업

비료 대신 한방영양제…전국 친환경농업 1번지

〈韓方〉

TF팀 구성 교육·컨설팅 자연농업 농가 크게 늘어 全 경지면적 45% '친환경'

곡성군 친환경농업과 조경훈 자연농업팀장(왼쪽)과 직원이 군 농업기술센터 영농자재 실습실에서 숙성중인 한방 영양제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멜론 농사를 짓는 임기섭(48·곡성군 고달면) 씨는 느닷없는 돌풍으로 비닐하우스가 찢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제 막 수정을 마쳐 열매가 달릴 시기인데다 설상가상으로 야간에 서리까지 내리는 바람에 한 해 농사를 망쳤다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

주위에서는 수확이 불가능 하다고 했지만 임씨는 뿌리의 활력을 높이는 한편 한방 영양제를 엽면에 뿌려 새순을 돋게 하는 특별한 '처방'으로 죽어가는 멜론을 살려냈고 두 달 뒤 출하의 기쁨을 맛보았다.

이러한 임씨의 비결은 '우연'이 아니라 화학농약이나 비료에 의존하지 않고 땅힘을 높이고 작물의 내성을 높이는 '자연순환형 생명농업'이라는 새로운 농법 덕분이었다.

◇작물을 튼튼하게 하는 '자연농업'=곡성군 들녘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곡성군은 기존의 친환경 농업에 이어 올해 시범사업으로 '자연순환형 생명농업'(이하 자연농업)을 본격 추진, 전국 제일의 친환경농업 메카로 도약하고 있다.

'자연농업'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축·임업 부산물을 재활용해 생태계와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뒤편의 영농자재 실습실에는 농업인들이 직접 만든 한방 영양제 등이 들어있는 100여 개의 항아리가 가지런하게 놓여있다. 하얀 천으로 밀봉된 항아리에는 만든 이의 이름과 재료, 날짜가 쓰여져 있다. 다른 한편에는 토착 미생물과 황토, 쌀겨를 혼합해 지푸라기로 덮어 놓았는데 손을 대보면 따뜻하다 느낄 정도로 발효 과정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다.

군 친환경농업과 조경훈 자연농업팀장은 "자연농업을 하는 벼의 경우 줄기 굵기나 이삭길이가 더 우수하고, 이삭도 관행농법이 108개인데 비해 자연농법은 223개나 달렸다"며 "토양 기반을 조성한 후 한방 영양제를 적절한 시기에 작물에 뿌려주면 병충해는 물론 연작피해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현재 곡성에서 '자연농업'을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벼 33ha, 메론 0.4ha, 상치 0.4ha, 사과 0.3ha 등 38농가이다.

살아있는 화석생물로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

◇친환경 지표 '긴꼬리투구새우'=곡성군은 올해를 '자연순환 생명농업'의 주춧돌을 놓는 해로 정하고 벼·축산·과수·채소 등 4개 분야 9명으로 자연농업 T/F팀을 구성했다. 이어 충북 괴산의 '조한규 지구촌 자연농업연구원'과 용역을 체결, 희망농가를 중심으로 기본·전문 교육을 익히는 한편 영농시기별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곡성군은 지난 2004년부터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꾸준하게 정책을 추진해 올해 전체 경지면적의 45%인 3천920ha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정책추진 결과 화학비료와 유기합성 농약의 사용량 감소로 샛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환경 복원에 따라 메뚜기, 잠자리 등 곤충 개체수가 증가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긴꼬리투구새우'가 관내 곳곳의 논에서 발견되고 있다. 2005, 2006년 2년 연속 전남도 친환경농업 부문 우수상(상사업비 4억5천만원), 2008년 최우수상(시상금 3억)을 받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더욱이 곡성 입면에 '생물방제 센터'와 천적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유기질퇴비 공장이 2010년 세워질 예정이어서 곡성군의 친환경 농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손한길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자연농업은 환경보존은 물론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고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농가소득은 더욱 증가하는 '자립 농업경영'의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도에는 벼 200ha, 원예분야 19개소 등 '자연농업'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친환경농업은 문화·환경까지 아우르는 종합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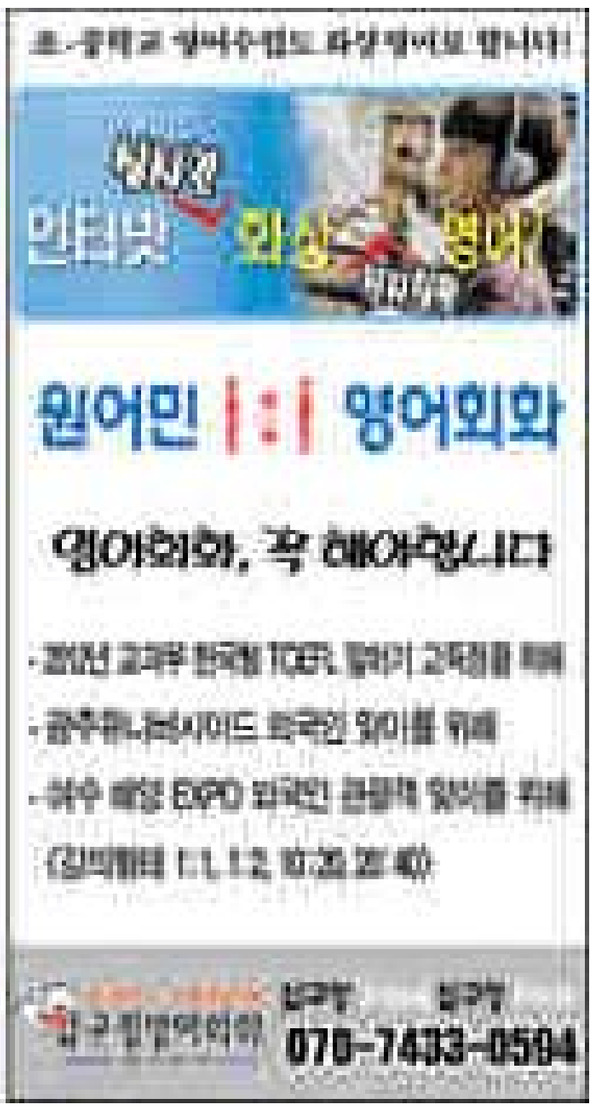
조형래 곡성군수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수치에 연연하지 않고 친환경농업의 질적인 향상과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조형래 곡성군수는 "친환경 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흙 살리기를 통해 사과·멜론·엽채소를 명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의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좁은 개념에서 벗어나 역사·문화, 환경·국토, 자연·관광자원 등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종합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농촌은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보존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 쾌적한 주거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취임 이후 군정의 최우선 과제를 '농업 살리기'에 두고 '곡성군 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부문 예산을 2배로 늘려 지난해에는 373억원을 투자했다. 친환경농업 면적이 45%를 차지하는 질적인 성장과 함께 전국 최초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공모, 곡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였다.

앞으로 산지가 70% 이상인 군 특성을 살려 무농약으로 재배하고 있는 임산물 및 특산물 인증은 적극 발굴·지원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유통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도 수립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곡성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과실 맛이 좋고 섬진강·보성강 맑은 물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다"며 "이러한 지역 여건을 잘 활용해 전국 제일의 친환경 농업 메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